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월 28일 토요일 뉴턴 소재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을 통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다

## 보스턴서 100여명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3.1절 맞아 세대가 함께 모여 선열의 헌신 되새겨  
2월 28일 토요일 오전 보스턴총영사관서 기념식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 지역 한인 100여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107회 3.1절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만세 운동을 통해 주권과 존엄을 선언한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나눴다.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그리고 메인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3.1절 기념식이 2월 28일 뉴턴 소재 보스턴총영사관 8층 행사공간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각 한인회 관계자와 단체장, 노인회원, 어린 학생들과

### 〈전체 기사 읽기〉

학부모 등 다양한 세대의 한인들이 참여해 3.1 운동에서 선열의 희생과 정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우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국민의례로 시작됐다. 박건후(10학년), 박지흠(5), 박준수(5), 박하준(4), 박하민(3), 신지유(킨더) 학생이 독립선언문

▶▶8면으로 계속



## 이번 주 일요일 3월 8일 서머타임 시작

미리 잠자리에 들어 신체 리듬 조절해야

###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5년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주 일요일인 8일부터 시행된다. 서머타임의 시작과 더불어 8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앞으로 가게 된다. ‘Spring for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은 비공식적이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일몰 시간이 지금보다 늘어나 6시 30분까지 해가 지지 않게 된다. 이에 야외 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도 더 갖는다.

▶▶8면으로 계속

### 봄 부동산 특집

## 보스턴 지역에서 다운페이먼트 마련하는 법

매사추세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전문가 조언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7월, 그레이터 보스턴의 주택 중위가격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가격표는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과연 다운페이먼트(계약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최근 금융 마켓플레이스 렌딩트리의 연구

에 따르면,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중위 다운페이먼트 요구액이 두 번째로 높은 주로 나타났다. 1위는 캘리포니아였으며, 매사추세츠의 중위 다운페이먼트는 8만5,000달러다. 이는 전국 구매자들이 계획하는 중위 다운페이먼트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렌딩트리의 최고 소비자 금융 분석가 맷 술

### 〈전체 기사 읽기〉

츠는 “현재 일반적인 구매자는 4만5,000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그럼에도 20퍼센트에는 못 미치고, 일반적인 저축 속도로는 평균 가구가 이 돈을 모으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구매자들에게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예비 구매자는 무엇

을 해야 할까. 보스턴글로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 구매자들이 집구매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다운페이먼트를 모으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감당 가능한 예산을 정해야 한다. 다운페이먼트 목표금액을 결정한 후에는 현실적인 저축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대출 기관과 대출 유형에 따라 주택 매매가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

▶▶8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턴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강원도민회의 지난 2025년 봄 모임, 좌로부터 안병학, 최언집, 김경순, 유엠마, 이학재, 유기영, 박형태, 양희영, 박수균, 김연호, 추경석, 고종성, 윤용훈, 남훈선 회원(직함 생략)

## 보스톤강원특별자치도민회, 창립 30주년 기념모임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강원특별자치도민회가 오는 3월 1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모임을 연다.

보스톤강원도민회는 1996년 고이강원 초대 고문과 이운로 초대회장, 박수균 총무를 비롯한 23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1997년 1월에는 당시 박신일 보스톤 총영사의 송별회를 겸한 신년 모임을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민회는 회원 간 친목과 경조사 지원을 비롯해 강원도 및 각 시군과

의 협력, 미주 지역 강원향우회와의 교류, 보스톤 지역 유학생과 임시체류자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와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강원도 학생 보스톤 초청,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골프 대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보스톤 지역 한인 단체들과의 협력 활동과 각종 모금 행사 지원에도 참여해왔다. 2025년 8월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았다.

### 〈전체 기사 읽기〉

도민회는 현재 약 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2~3차례 정기 및 특별 모임을 통해 회원 확대와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창립 30주년 기념모임은 3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벌링턴에 있는 세븐스프링스 콘도 클럽하우스에서 열린다.

문의는 박형태 회장 (617-645-9066), 이학재 부회장(617-852-0400), 유엠마 총무 (781-400-6241)에게 하면 된다.



## 우스터 한국학교 윤미랑 교장 별세

암 투병 속에서도 2세 교육 헌신...향년 58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윤미랑 우스터 한국학교 교장이 3월 2일 밤 우스터 소재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58세다.

윤교장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협의회 남일 회장의 부인 윤미아 사모의 동생으로 암 투병 중에도 한국학교 교장으로 2세 교육에 헌신해왔다. 병마와 싸우는 중에 교육 현장을 지키며 한인 차세대 교육을 위한 사명을 이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학교 협의회는 킷톡 메시지를 통해 “긴 시간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시고 2세 교육에 헌신하셨다”며 “행사 때마다 따뜻한 호응과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는데 안타깝다”며 애도를 표했다.

윤 교장의 웨이크는 3월 8일 일요일 우스터 소재 마케단트 퓨너

### 〈전체 기사 읽기〉

럴 홈 (Mercadante Funeral Home)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리며 장례예배는 3월 9일 10시 같은 퓨너럴홈에서 열린다. 장지는 우스터 루럴 묘지 (Rural Cemetery)이다.

### 천국환송예배 및 장례 일정

Wake: 3월 8일(Sun) 오후 3시~6시

Mercadante Funeral Home (370 Plantation St., Worcester, MA 01605)

천국환송 예배: 3월 9일(Mon) 10시 (Mercadante Funeral Home)

하관예배: 3월 9일 장지도착 후 (Rural Cemetery/180 Grove St., Worcester, MA 01605)

하관예배 후 점심식사 장소 (Imperial Buffet at 380 Maple Ave., Shrewsbury, MA 01545)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                                  |          |
|----------------------------------|----------|
| Korean Red Ginseng Powder        | 1,360 mg |
| Korean Red Ginseng Extract       | 80 mg    |
|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 120 mg   |
| Deer Antler Extract Powder       | 120 mg   |
| Korean Angelica Extract          | 120 mg   |
| Cornus Officinalis Powder        | 120 mg   |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929.600.4880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전화주문 서비스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는 한국유산... 매주 목요일 온라인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제6회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1년부터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온라인 강연을 통해 알려온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이 오는 3월 19일부터 4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는 현재 보스턴 버클리 음악대학 교수이며 재즈 베이스 연주가로 널리 알려진 레이 설(Ray Seol) 교수가 맡아, <한국 민속신앙과 K-팝 데몬 헌터스>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죽은 이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무속 의례인 씨김굿과 넷플릭스의 세계적 히트작인 케데헌의 가사 구성의 유사성을 보여주며, K-팝이 한국적 요소에 바탕을 두면서도 어떻게 세계로 퍼질 수 있었는지도 다룬다.

3월 26일의 두 번째 강의는 한국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이수자로, 이은 공방 대표이자 한국매듭연구회 부회장인 김시재 씨가 맡았다. 한국의 <매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독특한 대칭 구성과 예술성으로 발전해 왔는데, 전통 매듭에서부터 현대 매듭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매듭 과정을 직접 보여줄 예정이다.

4월 2일의 세 번째 강의는 고려청자의 이중 무늬 장식을 개발한 김세용 대가로부터 청자 및 백자 기술을 전수받은 도예가 김도훈 박사가 <달항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달 항아리는 그 단순한 속에 담긴 순수함과 우아함이 매력인데, 이 강의에서는 그 역사적·미학적 맥락을 소개하고 제작 과정의 핵심을 시연 또는 영상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월 9일의 네 번째 강의는 현재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아시아 미술과 문화 담당 디렉터로 있는 진진영 관장이 맡아 <전통 모자와 갓>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조선시대에 신분과 남성미의 상징이었던 '갓'은 지금은 팝 문화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상징성의 변천을 짚어보고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한국 문화가 계속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탐색해본다.

매듭에 대한 두 번째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나머지 강의들은 영어로 진행되며 약 45분 정도의 강의

Ray Seol



Dr. Ray Seol is a faculty member in the Professional Music Department in Boston, and a visiting fellow at Haskins Business School in the U.S. He is also a renowned jazz bassist and producer with decades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He has pioneered a unique approach to improvising and recording through interactive technology.

His interactive jazz project, 'Seoul's Agenda',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being named one of the 'Top 50 World Song Charts' and No. 1 on the North American Community Radio Chart. Dr. Seol was also a key contributor to 'Yashin' album nominated for a Latin Grammy. In 2024, he was honored as a 'New York University' Master of Arts in Arts Administration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a Doctor of Arts from New York University, where his research focused on the sense of belonging and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music.

Dr. Seol holds a Bachelor of Fine Arts in Jazz Studies from The New School, a Master of Music in Jazz from New York University, a Master of Arts in Arts Administration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a Doctor of Arts from New York University, where his research focused on the sense of belonging and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majoring in contemporary music.

Sian Kim

Kim Sian, traditional Korean Kkot artist, carries on the formal structure and philosophy of traditional Kkot, and at the same time interprets, educates, and researches the heritage through contemporary artistry. Her work focuses on faithfully preserving traditional techniques while expanding the knot into a new sculptural and conceptual language. She has exhibited in Japan, England, and Germany as well as in Korea. She is the Director of StudioSika.



Dohun Kim

Dohun Kim is the son of renowned Korean master potter Se Yung Kim, who for his mastery of the skill received many priz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at the same time interprets, educates, and researches the heritage through contemporary artistry. He has been engaged in the pottery field since childhood, and he has been expanding the pottery into a new sculptural and conceptual language. He has exhibited in Japan, England, and Germany as well as in Korea. He is the Director of StudioSika.



후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미 예술협회의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면 줌 링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리언 헤리티지 심포지엄>  
날짜: 3월 19일 - 한국 무속신앙과 케데헌 - 레이 설  
3월 26일: 매듭 - 김시재  
4월 2일: 달 항아리 - 김도훈  
4월 9일: 전통 모자와 갓 - 진진영  
시간: 오후 7:30-8:30 (동부 시간)  
상세정보: [www.kcsboston.org/heritage](http://www.kcsboston.org/heritage)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 흥행 돌풍 왕과 사는 남자, 보스턴서도 상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보스턴에서도 20일부터 시작, 이번 주말에도 3주째 계속 상영한다.

이 영화는 지난 2월 13일 로스엔젤레스와 달라스 등 북미 5개 도시에서 처음 상영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상영 지역을 확대했다. 2월 20일 기준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22개 도시에서 관객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보스턴에서는 노스스테이션 인근 AMC Causeway 13에서 2월 20일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이 영화는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급격히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폭발할 영화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스턴 지역의 상영관들은 매주 흥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주의 개봉 여부를 관

단하는데 입소문만으로 2주째 상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의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유배지를 택한 총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역사적 비극을 바탕으로 두 인물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2월 4일 개봉 이후 23일 만에 누적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첫 천만 영화 달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흥행 흐름이 북미 시장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스턴에서도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 열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보스턴 프로젝트 섹션8주택, 대기자 접수 시작

신청 접수 순서대로 대기자 등록...소득 기준 충족해야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턴 락스베리에 위치한 뉴 아카데미 에스테이츠(New Academy Estates) 프로젝트 기반 섹션8(Project-Based Section 8) 주택의 대기자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모집은 1베드룸부터 5베드룸 까지 다양한 규모의 유닛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서는 3월 3일부터 3월 31일 까지 매사추세츠주 락스베리 2918 워싱턴 스트리트(2918 Washing-

ton St)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다. 특히 이번 대기자 명단 등록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등록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3월 31일 이후에는 신청서를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같은 날 대기자

| HH Size | 30% Max Income | 50% Max Income |
|---------|----------------|----------------|
| 1       | \$34,750       | \$57,900       |
| 2       | \$39,700       | \$66,200       |
| 3       | \$44,650       | \$74,450       |
| 4       | \$49,600       | \$82,700       |
| 5       | \$53,600       | \$89,350       |
| 6       | \$57,550       | \$95,950       |
| 7       | \$61,550       | \$102,550      |
| 8       | \$65,500       | \$109,200      |

가구 인원별 소득 기준(Income Limits by Household Size): 변경될 수 있음

명단 접수가 마감된다. 아파트 유닛에는 현대적인 마감재와 리모델링된 주방과 욕실, 새롭게 교체된 바닥재가 적용됐다. 또한 각 유닛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연결 시설이 마련돼 있다. 렌트비에는 난방과 온수 비용이 포함되며 전기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지 내에는 넓은 커뮤니티 룸과 컴퓨터실, 음악 스튜디오,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 세탁 시설, 놀이터, 전용 주차 공간 등이 마련돼 있으며 현장 관리 사무소와 24시간 긴급 유지보수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번 주택은 소득 제한이 있는 보조 주택 프로그램으로 모든 신청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용 기록과 범죄 기록, 이전 임대인 추천(landlord references)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주택은 프로젝트 기반 섹션8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섹션8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다. 가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만700달러 이하, 4인 가구는 8만2700달러 이하일 경우 50% 기준에 해당한다. 이 소득 기준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리 사무소에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뉴 아카데미 에스테이츠는 주택 관리 회사인 윈레지덴셜(WinnResidential)이 전문 관리한다. hsb@bostonkorea.com

2918 Washington St Roxbury, MA 02119  
Phone: 617-445-0731 TTY: (800) 439-2370  
Newacademyestates.com

뉴아카데미 에스테이츠(New Academy Estates)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Project-Based Section 8) 하우징 대기자 접수가 시작됐으며 1베드룸, 2베드룸, 3베드룸, 4베드룸, 5베드룸 유닛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서는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매사추세츠주 락스베리(Roxbury) 2918 Washington St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 및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수령 및 제출 기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이다. 2026년 3월 31일 이후에는 신청서를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는 대기자 명단 접수가 마감된다.

이 아파트는 현대적인 마감재, 리모델링된 주방과 욕실, 업데이트된 바닥재, 그리고 유닛 내 세탁기와 건조기 연결시설을 갖추고 있다. 임대료에는 난방과 온수가 포함되며, 전기 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커뮤니티 편의시설로는 넓은 커뮤니티 룸, 컴퓨터실, 음악 스튜디오,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 세탁 시설, 놀이터, 전용 주차 공간, 현장 관리 사무소, 24시간 긴급 유지보수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신청서는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락스베리 2918 Washington St 사무실에서 직접 접수한다. 신청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수령 및 제출할 수 있다. 2026년 3월 31일 이후에는 우편으로만 신청서를 접수하며, 대기자 명단은 3월 31일에 마감된다.

모든 신청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 기록, 범죄 기록, 이전 임대인 추천(landlord references)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이 주택은 이미 보조금이 적용된 프로젝트 기반 주택이므로 일반 섹션 8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다. 장애가 있어 신청 과정에서 합리적인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이 필요한 경우 관리 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다.

윈레지덴셜(WinnResidential)이 전문관리.

가구 인원별 소득 기준(Income Limits by Household Size): 변경될 수 있음.

| HH Size | 30% Max Income | 50% Max Income |
|---------|----------------|----------------|
| 1       | \$34,750       | \$57,900       |
| 2       | \$39,700       | \$66,200       |
| 3       | \$44,650       | \$74,450       |
| 4       | \$49,600       | \$82,700       |
| 5       | \$53,600       | \$89,350       |
| 6       | \$57,550       | \$95,950       |
| 7       | \$61,550       | \$102,550      |
| 8       | \$65,500       | \$109,200      |



# 매사추세츠 하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법안 통과

매스세이브 예산 대폭 삭감·원전 규제 완화 포함  
환경단체 “에너지 효율 정책 훼손” 반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역대급 폭설로 수천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하원이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7일 밤 에너지 비용 완화를 목표로 한 법안(H 5151)을 찬성 128표, 반대 27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매스세이브(Mass Save) 프로그램의 마케팅 및 행정 예산에서 약 10억 달러를 삭감하고, 대체의무 이행금(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 ACP)의 70%를 2029년 중반까지 요금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태양광 패널 설치자들에게 지급하는 넷미터링 보상비용을 줄인다.

ACP는 전력 공급업체가 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신 내는 일종의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지금까지는 이 돈이 기금으로 쌓이거나 프로그램 재원으로 쓰

였으나 하원은 70%를 납부자들에게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매스세이브는 집의 단열, 고효율 보일러 교체, 히트펌프 설치 등에 보조금을 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해당 지원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던 일부 요금이 인하는 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다.

또한 넷 미터링의 경우 기존에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만큼 태양광에서 전력망으로 보내는 전기에 대해 보상해 태양광 설치를 우대하는 정책이었다. 이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태양광 설치 유인을 축소하게 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조달 권한을 확대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를 규정한 1982년 법을 폐지하며, 해상풍력 장기계약 체결 기한을 2029년까지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전체 기사 읽기〉

이는 지난해 가을 통신·유틸리티·에너지위원회가 지지했던 안을 수정한 것이지만 2030년까지 1990년대 비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도록 한 골격 규정은 수정하지 않았다.

하원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방어했다. 회의장 밖에는 매스세이브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렸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에런 마이클 위츠는 ACP 환급과 매스세이브 삭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즉각적인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세출위원회는 넷 미터링 요금 크레딧 축소와 일부 요금 구조 개편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절감 효과가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유틸리티·에너지위원장 마크 쿠색은 이번 조치를 “1년간의 일시 중단”이라고 설명하며, “삭감은 프로그램 운영과 마케팅 등 비대해진 행정 비용에 집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자체



로날도 마리아노 하원의장

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설립시부터 지속되어온 인센티브와 뒷단 비용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요금 절감,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 감사관이 프로그램 전반을 검토해 개선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에너지 비용 문제는 비컨힐과 2026년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별도의 에너지 부담 완화 계획을 제출했으며, 올겨울 한시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낮추기 위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매사추세츠 가구의 중위 에너지 지출은 소득의 3% 수준이다.

한편 상원은 기후 목표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원 의장 캐런 스피카는 “기후 목표와 에너지 부담 완화는 균형을 맞춰야 할 과제”라며 “기후 목표에서 물러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원안은 이제 상원 심의를 거치게 된다. 에너지 요금의 단기 인화와 장기 기후 목표를 놓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 하버드 청소 노동자, 시간당 4달러 인상 합의... 20년 최대 인상

보너스 500달러·이민자 노동자 고용 보호 포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과 연방 중재 끝에 시간당 4달러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정 노동계약에 합의했다.

매스라이브와 보스톤 비즈니스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하버드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800여 명에게 적용되며, 지난 20여 년 사이 가장 큰 임금 인상이다. 계약에는 대학 직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외주 청소업체 직원들도 포함된다.

노조 협상위원이자 하버드 청소노동자인 헬레나 반데이라는 성명을 통해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위함을 감수하며 일했고, 올해 겨울 폭설 때도 가장 먼저 대응했다”며 “이제 매사추세츠의 높은 생활비를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임금 인상과 기존 복지 보호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 〈전체 기사 읽기〉

이번 합의는 2월 19일 열린 대규모 집회 이후 이루어졌다. 당시 청소 노동자들은 공정한 임금과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집회에는 연방 하원의원 아야나 프레슬리와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원 마저리 데커도 참석해 노동자들을 지지했다.

청소 노동자들의 기존 계약은 2025년 11월 중순 만료됐다. 이후 수주 동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하루 파업이 진행됐고, 결국 연방 중재자가 협상에 투입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는 임금 인상 외에도 각

노동자에게 5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하고, 저렴한 의료보험을 유지하며, 이민자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버드 크립슨에 따르면 현재 하버드 청소노동자의 시급은 약 28달러에서 3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가 승인되면 시급은 약 32달러에서 34달러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노조 조합원들이 계약을 승인하면 합의는 2025년 11월 15일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풀타임 청소 노동자들은 보너스 포함 약 3천여 달러를 일시적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원데이 무료체험을 해드립니다  
연락을 주세요!



기미 / 잡티 / 리프팅 / 탄력 / 미백 / 여드름 / 아토피

Esther TL SGM ICD 781.454.1357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뉴잉글랜드 최대 규모·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음악·미술·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팻홀 시즌' 시작... 차량 손상 줄이기 위한 운전 요령

3월 중순 본격적인 팻홀 등장...서행과 차간 거리 유지가 필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몇 달 동안 이어진 폭설과 추위로 인해 매사추세츠 전역의 도로에 '팻홀(pothole)'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팻홀은 아스팔트가 들뜨고 깨지며 만들어지는 깊은 구멍이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눈 치우기 작업으로 손상된 아스팔트 균열 사이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생긴다. 보통 팻홀은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팻홀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AAA에 따르면 팻홀은 타이어와 휠을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차량 하부가 도로에 닿는 '바텀 아웃(bottom out)' 현상을 일으켜 서스펜션이나 하부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다.

실제로 AAA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4천4백만 명의 운전자가 팻홀로 인한 차량 수

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AA 노스이스트의 질리언 영 홍보 국장은 운전자들이 "이 시기에는 팻홀이 피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운전 습관을 조정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AAA는 팻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운전 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도로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고 팻홀을 피할 시간이 늘어난다. 또한 큰 물웅덩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물웅덩이처럼 보여도 그 아래 깊은 팻홀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 제조사가 권장하는 공기압은 보통 운전석 문 안쪽 스티커에 표시돼 있으며, 공기압이 낮으면 충격을 더 크게 받아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인기를 끄는 '로우 프로파일(low-profile)' 타이어는 디자인은

〈전체 기사 읽기〉

좋지만 팻홀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팻홀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능한 직선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서스펜션 손상을 줄이기 위해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팻홀을 지나가는 순간만큼은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강한 제동은 서스펜션을 압축시켜 타이어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팻홀을 지난 뒤 차량에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진다면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운전자들은 팻홀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팻홀로 인한 차량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hsb@bostonkorea.com



## 매사추세츠 2위 건강보험사 영업 손실 감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2위 규모의 건강보험사 포인트 32헬스(Point32Health)가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단행한 가운데, 2025년 영업손실을 3억100만 달러로 줄였다고 밝혔다.

포인트 32헬스는 터프츠헬스 플랜(Tufts Health Plan)과 하버드 필그림헬스(Harvard Pilgrim Health Care)의 모회사로 지난 2024년에는 3억8,200만 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8천만 달러 이상의 영업손실이 축소됐다.

신임 최고경영자는 앞서 보스턴비즈니스저널과의 인터뷰에서 2027년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거나 소폭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350명 이상을 감원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보장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일부 약물은 보장을 중

〈전체 기사 읽기〉

단했고, 보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약물을 포함하는 보험 상품의 비용을 인상했다.

이 건강보험사는 약 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98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다.

마이클 마론 최고재무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료 및 약제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프로그램과 행정 비용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개선과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에서 포인트 32헬스보다 규모가 큰 1위 건강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achusetts)도 지난해 3억 8,050만 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보고했다. 다만 이 역시 전년도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hsb@bostonkorea.com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인터뷰하고 있는 발렌티나 아마로 주정부 다문화 미디어 디렉터(사진 = 주정부)

## 주지사 다문화 대변인마저 영주권 비자 거부로 정직당해

베네수엘라 비자 동결 여파...이민비자 문제 상징적 사건  
주내 소수 언론들과 이민사회 소통 창구 공백 우려

【보스턴=보스턴코리아】장명술 기자=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행정부에서 다문화 미디어 디렉터로 활동해온 발렌티나 아마로 보우서 대변인이 취업 허가 만료로 무급 정직 처리됐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아마로 디렉터는 2013년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왔으며, 지난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뒤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비자 처리를 동결하면서 그녀의 영주권 및 취업 비자 연장 신청이 모두 보류됐다. 이에 아마로 디렉터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최근 10일 이내에 취업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판결했다. 다만 영주권 신청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재 이민자 사회가 겪고 있는 광범위한 비자 지연과 거부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매사추세츠 주내 한 라틴계 교사도 최근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취업허가가 만료돼 교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심사 지연과 승인 보류 사례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는 “영주권 갱신 신청조차도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발렌티나

【전체 기사 읽기】는 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밟았다”며 연방정부가 그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마로 디렉터는 취임 직후 신설된 직책을 맡아 브라질, 아이티, 스페인어권 언론 등 60여 개 다문화 매체와 주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스페인어 라디오 출연, 정부 자료 번역, 주정부 인사와의 간담회 주선 등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라틴계 언론뿐 아니라 아시아계, 아이티계 등 다양한 소수민족 언론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매사추세츠 히스패닉 언론인들 다수는 보우서의 공백으로 주정부와 이민자 사회 간 직접 소통 창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2014년에서 2023년 사이 신규 유입 주민의 약 80퍼센트가 라틴계로 집계되는 등 이민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언론과의 협력은 주정부 정책 전달과 공공 안전 정보 확산에 중요한 통로로 평가돼왔다.

## 매사추세츠 고등학생 AP 성적 전국 1위...역대 최고 기록

졸업생 35.8%가 대학 수준 시험서 3점 이상

【보스턴=보스턴코리아】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학점 선이수 프로그램’인 AP(Advanced Placement) 시험에서 다시 한번 전국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대학입학시험위원회(College Board)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매사추세츠 공립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35.8%가 고등학교 재학 중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5점 만점 중 3점 이상을 받았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동시에 역대 최고 기록이다.

전국 평균은 24.8%로 매사추세츠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매사추세츠는 이 지표에서 여러 차례 전국 1위를 기록해 왔으며, 가장 최근인 2024년에도 최고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 학생들과 교육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또다시 전국을 선도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AP 시험에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졸업 이후 성공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P 시험은 대학 수준의 교과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수강하고 시험을 통해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5점 만점 가운데 3점 이상을 받을 경우 해당 과목의 대학 입문 수준 수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많은 대학에서 학점 인정이나 수강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김 드리스콜 부지사는 “AP 같은 고급 과정은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학업을 미리 경험하도록 돕고,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

### 〈전체 기사 읽기〉

해 졸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성과는 매사추세츠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성과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해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AP 시험 참여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매사추세츠 공립고 졸업생의 48%가 재학 중 AP 시험을 치렀으며 이는 워싱턴 D.C와 뉴욕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5년 42.2%에서 2025년 48%로 증가했다.

또한 매사추세츠 공립고의 86.1%가 최소 한 과목 이상의 AP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참여 확대 측면에서도 성과가 확인됐다. 2025년 졸업생 가운데 흑인 학생의 37.3%가 AP 시험을 치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9.8%에서 7.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학생의 AP 시험 참여율도 2015년 28.6%에서 2025년 36.9%로 증가했다.

주정부는 AP 과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응시료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AP 시험 응시료는 과목당 99달러지만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보조금이 제공돼 학생이나 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은 22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학년도에 주정부는 AP와 국제 바칼로레아(IB) 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최대 110만 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는 또한 고등학생들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얼리 칼리지(Early College)’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1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우스터 한인 연합 감리 교회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새 예배당 주소 :**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예배 시간 : 주일 오후 2:30**  
**친교 시간 : 주일 오후 3:30**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Worcest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64 Salisbury St. Worcester, MA 01609  
Tel: 508.799.4488 Email: office@workmc.org  
http://workmc.org



# 보스턴서 100여명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1면에 이어서

을 낭독하며 당시 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선언을 전했다. 이어 김선율(8), 박승후(7), 조은(5), 유주하(4), 최재희(4), 이아리아(2), 유지안(2), 김동윤(2), 김동진(K) 학생이 참가해 애국가와 아름다운 나라를 불러 행사 분위기를 북돋았다.

김재휘 총영사는 기념사를 통해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분연히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기상은 이제 이곳 보스턴, 그리고 뉴잉글랜드 전체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며 “보스턴 총영사관은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우리 동포 사회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장서는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또한 총영사관이 들어선 빌딩 앞에 총영사관 표지석이 설치된 사실을 언급하며 “봄이 오면 보강

공사를 해서 정식으로 표지석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수 매사추세츠 한인회장은 축사를 통해 “3.1절을 계기로 나라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나섰던 마음들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한인사회도 더욱 자랑스럽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인에서 참석한 안영례 메인 한인회장은 “세차장에서 잠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두려움이 드는데 100년이 넘는 일제 강점기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고 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열의 뜻을 잇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광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은 미주한인회 총연이 과거의 분열을 끝

내고 새롭게 출발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윤 회장은 이어 “조상들의 헌신 덕분에 미국에서 번창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열을 이어받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랑스러운 후손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에는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하는 검정치마에 하얀저고리 치림의 안예선(앤도버하이, 11학년) 학생이 선창을 맡았다. 참석한 한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함차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앞에서 만세 삼창을 이끄는 것이 떨렸다는 안예선 학생은 “대한독립 만세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많은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 느낌이

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어린 딸과 함께 참여한 이흥기 씨는 “아이들이 이런 3.1절 행사를 접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집에 가는 길에 3.1절이 어떤 날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박건후 학생은 “독립 선언서를 연습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

했다.

한편, 총영사관이 8층으로 확장 이전한 후 처음 행사에 참가한 로드아일랜드와 메인 한인회 관계자들은 새로 마련된 넓은 행사 공간에 대해 “아름다운 공간에서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하며 김 총영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 이번 주 일요일 3월 8일 서머타임 시작

▶▶1면에 이어서

다만 아침에 한시간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동안 유지해온 생체리듬의 변화를 초래하기에 일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머타임에 앞서 미리 20-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야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고 조언한다.

서머타임은 1년에 두번씩 시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며 6개월간 쌓아왔던 신체리듬을 흔들어 놓는다.

모든 스마트 기기는 자동으로 서머타임 해제가 적용되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바뀌어야 하는 벽걸이 시계, 오래된 차량의 시계는 토요일인 3월 7일 밤에 시계 침을 한시간 앞으로 돌려 놓으면 혼동을 막을 수 있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턴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서울의 시간은

미국 동부보다 13시간, 서부보다는 16시간 빠르게 된다.

**서머타임에 법제화 호지부지**

최근 몇 년 동안 서머타임으로 인한 시계 조정을 없애자는 의견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도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은 좀체 이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하원에서는 서머타임을 30분만 앞으로 돌려 신체리듬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1시간보다는 30분 변화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신체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학협회(AMA)와 미국수면의학아카데미(AASM)는 시간 변경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서머타임보다 표준시(Standard Time)를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수면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hsb@bostonkorea.com



##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턴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교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웨어러블 기업 후프, 올해 600명 채용 계획... 대부분 보스턴 본사 근무

기술기업 감원 이어지는 가운데 공격적 채용...AI 투자와 인력 확충 동시에 추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AI로 인한 해고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스턴에 본사를 둔 웨어러블 스타트업 후프(Whoop)가 2026년 한 해 동안 약 6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현재 약 800명 수준인 회사 인력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규모다. 이는 소프트웨어, 연구 및 디자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 마케팅 등 회사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후프는 신규 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보스턴 কেন모어 스퀘어에 위치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에서도 일부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테크 업계 전반에서 대규모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프의 공격적인 채용 계획은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1월 아마존은 약 1만 6천 명을 감원했으며, 결제 테크 기업 블록(Block)은 지난주 약 4천 명, 즉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감원

한다고 발표했다. 보스턴 지역에서도 집카(Zipcar)와 드래프트킹스(DraftKings)가 최근 각각 100명 이상의 직원을 줄였다.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과도한 채용이 이뤄졌던 점도 감원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후프의 월 아메드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할지, 아니면 AI에 투자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후프는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프는 향후 2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메드 CEO는 지난해 밝힌 바 있다. 만약 상장이 성사될 경우 이는 2023년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 클라비오(Klaviyo) 이후 보스턴 테크 기업의 첫 대형 IPO가 될 가능성이 있다.

회사는 채용 규모가 크게 늘어나

## 〈전체 기사 읽기〉

더라도 선발 기준은 엄격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후프는 약 750명의 지원자 중 1명만 채용할 정도로 선발 과정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2012년에 설립된 후프는 처음에는 선수들의 훈련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손목 밴드를 개발하며 성장했다. 스마트워치와 달리 복잡한 기능을 최소화하고 운동 성과 분석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후 회사는 4억 달러 이상 벤처투자를 유치하며 일반 소비자용 건강 데이터 웨어러블 기기기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약 3년 전 후프는 보스턴 কেন모어 스퀘어의 새 건물로 본사를 이전했다. 8층 규모, 약 12만1천 제곱피트의 사무실은 보스턴의 상징적인 시트고(Citigo) 건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후프는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첫 건강 추적 기능 밴드를 선보였다. 해당 밴드는 심전도(EKG)를 측정해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질환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혈압 측정 기능을 두고 FDA와 규제 필요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올해 1월에는 규제 당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아메드 CEO와 후프는 보스턴 지역에서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AI 연합(Massachusetts AI Coalition)은 지난달 후프 본사에서 첫 행사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참석했다.

hsb@bostonkorea.com



## 모건스탠리 2,500명 감원...전 사업부 대상 약 3% 감축

투자은행·자산관리·투자운용 부문 포함...AI 확산 속 월가 감원 흐름 이어져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전체 직원의 약 3%에 해당하는 2,500명을 감원한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원은 3개 주요 사업부문인 투자은행 및 트레이딩, 자산관리, 투자운용 등 전반에서 이루어지며 미국뿐 아니라 해외 직원들도 포함된다.

모건스탠리의 전체 직원 수는 약 8만3,000명으로, 이번 구조조정은 사업 전략 변화와 근무 지역 조정, 일부 직원의 성과 평가 등을 반영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는 지난주부터 시작됐으며 3월 4일 수요일에 상당수 인력 감원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은행의 초고액 자산가 전담관리 전문가와 행정 직원들이 감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는 고액 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모기지 대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원은 모건스탠리가 2025년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다. 지난해 투자는

## 〈전체 기사 읽기〉

행 및 트레이딩 부문과 자산관리 부문 모두에서 연간 매출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자산관리 부문은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최근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칼라 인력 감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인력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블록(Block)은 최근 AI 모델 발전을 이유로 전체 직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4,000명 이상을 감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Salesforce)는 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고객지원 부문 약 4,000개 일자리를 줄였으며, 소셜미디어 기업 핀터레스트(Pinterest)도 AI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약 15%의 인력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 미국, 8년 만에 상업용 원자로 건설 허가...와이오밍에 차세대 원전 추진

빌 게이츠 투자 테라파워 프로젝트 승인...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주목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정부가 8년 만에 새로운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는 3월 4일 빌 게이츠가 투자한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TerraPower)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이후 처음 발급된 상업용 원자로 건설 허가다.

테라파워는 2024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 승인에 따라 수 주 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사는 약 40억 달러 규모의 이 원전

이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원자로에는 나트륨 냉각 방식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로, 기본 출력은 345메가와트이며 최대 500메가와트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약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테라파워의 크리스 레베스크 CEO는 성명을 통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수천 시간의 노력을 들였다”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창립하

## 〈전체 기사 읽기〉

고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 회사가 추진하고 있다. 게이츠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을 적극 지지해왔다.

새 원자로에는 와이오밍 서부 케머러(Kemmerer)에 건설될 예정이다. 인구 약 2,500명의 작은 도시인 케머러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동쪽 약 1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원전은 현재 석탄 발전소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 중인 퍼시픽 코퍼(PacifiCorp)의 노턴(Naughton) 발전소 부지에 들어



설 계획이다. 기존 발전소는 새 원전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자력을 포함한 안정

적인 전력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원전 건설 허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력 기술 확대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턴에서 맞이하는 봄의 축제: 와인, 초콜릿, 그리고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턴은 3월 초부터 중반까지 와인과 디저트, 전통 퍼레이드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들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다. 미식과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된 이번 일정은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시즌 이벤트로 주목받는다.

같은 날 열리는 와인 엑스포와 초콜릿 테이스팅 이벤트는 미식 애호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일정이다. 낮에는 거리에서 달콤한 초콜릿을 맛보고, 이후에는 세계 각국의 와인을 경험하며 보스턴의 주말을 특별하게 채울 수 있다.

3월 중순에는 보스턴을 대표하는 전통 퍼레이드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린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지역 커뮤니티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들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보스턴 와인 엑스포 (Boston Wine Expo)

Boston Wine Expo는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와인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2026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힐튼 보스턴과 크 플라자 호텔(Hilton Boston Park Plaza Hotel)에서 열린다. 1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참가해 다양한 와인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은 생산자와 수입업자와 직접 교류할 수 있다.

## 〈전체 기사 읽기〉

행사에서는 그랜드테이스팅 세션과 교육적인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시음을 넘어 와인의 산지, 품종, 양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특징이다.

이 엑스포는 단순한 시음 행사를 넘어 와인 문화 전반을 조명하는 자리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국가와 스타일의 와인을 한 자리에서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와인들을 직접 시음하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일시: 2026년 3월 7일 ~ 8일 (토-일)  
장소: Hilton Boston Park Plaza Hotel  
웹사이트: <https://boswineexpo.com/>

## 하버드스퀘어 초콜릿 테이스팅 이벤트 (Harvard Square Chocolate Tasting Event)

이벤트는 하버드스퀘어 초콜릿 테이스팅 이벤트를 통해 초콜릿의 다양한 맛과 질감을 경험할 수 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시음하고, 각각의 특성과 맛을 알아볼 수 있다.

일시: 2026년 3월 7일, 13:00-14:00  
장소: Brattle Street (between Eliot St & Church St)

##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South Boston St. Patrick's Day Parade)

이 퍼레이드는 보스턴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다. 2026년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사우스 보스턴(South Boston)에서 시작한다. 퍼레이드는 Broadway MBTA 역 인근에서 출발해 Farragut Road까지 이어진다.

이 이벤트는 지역 상점과 레스토랑이 참여해 다양한 초콜릿 샘플을 제공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하버드스퀘어 일대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다. 야외 거리에서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방문객들은 거리 산책과 함께 초콜릿을 맛보며 지역 상권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다. 커뮤니티 중심의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겨울의 끝자락을 달콤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 행사에 둘러 보자. 거리에서 다양한 초콜릿을 맛보며 하버드스퀘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주말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일시: 2026년 3월 7일, 13:00-14:00  
장소: Brattle Street (between Eliot St & Church St)

## 웹사이트: <https://harvard-square.com/winter-carnival-2026/>

##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South Boston St. Patrick's Day Parade)

이 행사는 아일랜드계 커뮤니티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한다. 매년 수많은 관람객이 도로 양옆을 가득 메우며 행진을 지켜본다. 퍼레이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다.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



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는다. 보스턴의 전통적인 봄 축제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싶다면 이 퍼레이드를 놓치지 말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행진을 즐기며 도시의 문화와 활기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일시: 2026년 3월 15일, 11:30 AM  
장소: Broadway MBTA Stop → Farragut Road, South Boston  
웹사이트: <https://southboston-parade.org/>  
bostonkorean@hotmail.com

일시: 2026년 3월 7일, 13:00-14:00  
장소: Brattle Street (between Eliot St & Church St)

## 웹사이트: <https://harvard-square.com/winter-carnival-2026/>

## 성 패트릭스데이 퍼레이드 (South Boston St. Patrick's Day Parade)

이 퍼레이드는 보스턴의 대표적인 전통 행사다. 2026년 3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사우스 보스턴(South Boston)에서 시작한다. 퍼레이드는 Broadway MBTA 역 인근에서 출발해 Farragut Road까지 이어진다.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huram@huram.kr](mailto:huram@huram.kr)  
홈페이지: [www.huramkorea.com](http://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https://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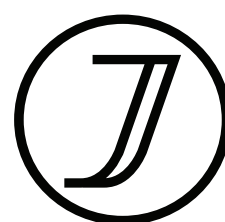






##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 AI가 '전장의 두뇌' 많은 최초의 전쟁...참모가 된 LLM

이란 전쟁서 위력 발휘 엔트로픽 클로드-팔란티어 결합  
특화 아닌 범용 AI가 대규모 전쟁 정보 분석·추론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이란대사관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드 쿠제치(Saeed Koozechi) 주한이란대사 기자회견에 앞서 현지 사진을 벽에 붙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챗 GPT 등장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 중인 거대언어모델(LLM)이 전장의 '두뇌' 역할로 공식 투입된 최초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전쟁이나 소규모 공격에 활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특화 AI가 아닌 범용·상업용 AI에 해당하는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종합적인

전투 시뮬레이션을 관장한 것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AI는 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AI 플랫폼 팔란티어가 실전에 투입된 첫 대규모 사례로 꼽힌다.

위성 사진, 드론 영상, CCTV 등 각종 감시 장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내용을 통합 분석해 타격 좌표 산출, 지뢰 탐지, 전쟁 범죄 증거 수집 등에 활용됐다.

다만,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과 다른 점은 이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자체 분석 플랫폼이 중심이 됐고 클로드와 같은 범용 AI가 추론 엔진 형태로 결합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가자 전쟁 등에서도 군사용 AI가 전장에서 활용됐지만 이미지 분류, 물체 탐지 등 한정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특화 모델이었다.

클로드와 같은 범용 LLM은 복수의 이질적인 정보를 동시에 분석, 맥

락화하고 인간 판단을 훨씬 앞지르는 속도로 복잡한 추론 결과를 내놓는다.

기존 전쟁에서 사용된 특화 AI가 표적을 감지, 타격 성공률을 높이는 수준이었다면 최근 발발한 이란 공습에서 클로드는 무엇을, 언제, 왜 타격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서 인간 사령관에게 언어로 설명하는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공습 첫 24시간 동안 1천여개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AI 기반 군사정보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엔트로픽 클로드는 지난해 11월 팔란티어와의 협약을 통해 군사 의사결정 플랫폼에 통합된 상태로, MMS에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팔란티어는 온톨로지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 모델로 자체 LLM은 개발하지 않아서 다른 AI기업의 LLM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엔트로픽은 미국 행정부가

AI를 전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할 가능성에 경고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갈등이 불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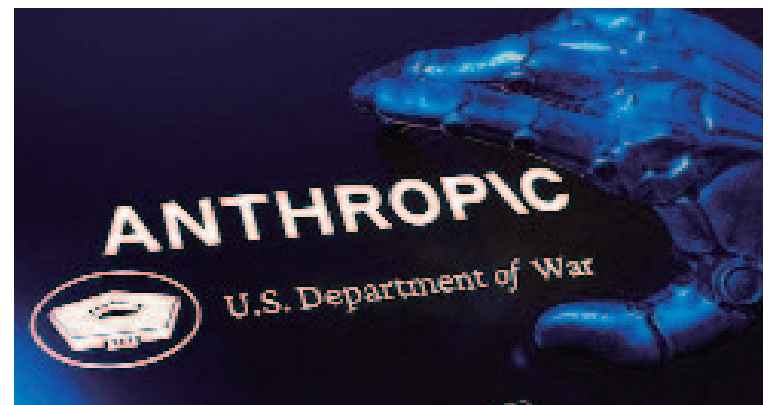
이 회사가 미국 시민 대상 대규모 감시와 원전 자율 무기에 클로드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하고 계약 파기 및 연방 기관의 엔트로픽 사용 전면 금지에 나선 것이다.

엔트로픽의 빈자리를 라이벌인 오픈AI가 미국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 AI 모델 배포 계약을 전격 체결하며 메우고 나서자 미국 내에서 엔트로픽 지지와 오픈AI '보이콧'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엔트로픽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한 상태에서 '미군의 두뇌' 역할을 클로드가 되찾을지 챗GPT가 계속 맡게 될지 미지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대체재를 찾지 못하는 등 전장 활용 측면에서는 클로드 기술력이 당분간 앞설 것으로 AI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csn@yna.co.kr



좋은사람들  
www.huram.co.kr  
성모안과

##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 구글, 앱수수료 인하 · 외부결제 허용...에픽게임즈 5년 분쟁 종결

韓플레이스토어엔 개편안 연내 도입...포트나이트 전세계 플레이스토어 복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포트나이트' 개발사에

픽게임즈와 5년을 끌어온 분쟁도 마무리 지었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담당 사장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앱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도

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선택권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 · 영국 · 유럽 경제 지역(EEA) 등에 먼저 적용되며 한국 시장에는 연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구글은 또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앱 장터를 미리 등록해 이용자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 장터에서 앱을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부 앱 장터를 미국 시장에서 도입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이 같은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 옛 트위터)를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개방해 경쟁 앱 장터와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모든 개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왔던 (구글과의) 모든 분쟁을 합의 종결했다. 고맙다, 구글"이라고 말

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그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했던 포트나이트가 곧 전 세계 플레이스토어에 복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먼저 복귀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 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법원 명령이 부담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comma@yna.co.kr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 사진으로 보는 2026년 2월 한인사회

## 보스턴서 100여명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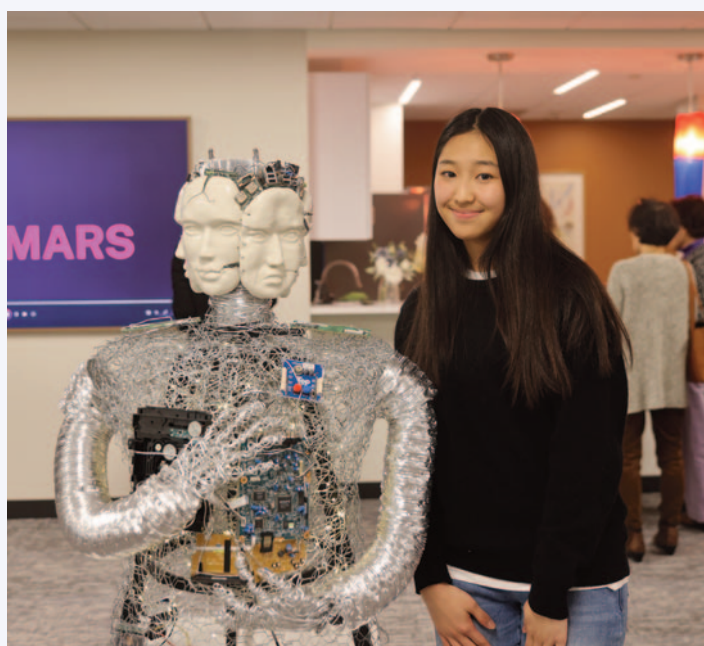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에 2세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사진 왼쪽은 유관순 열사 차림의 안혜선 학생이 보인다. 사진 오른쪽 위는 합창단에 참여한 학생들이며 사진 아래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학생들이다

##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 선거, 댄 고 자금 · 지지 선언 모두 선두



매사추세츠 연방하원의원선거에 출마한 댄 고 후보가 2월 21일 파바디에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지역주민들과 주요 정치인, 노조관계자, 그리고 가족들이 참여했다

## 예술협회, 26명의 청소년 작가 작품 총영사관서 성황리에 전시



2월 13일 보스턴총영사관에서 열린 보스턴한미예술협회 코큐브 전시회. 왼쪽 사진은 메인 작가 중의 한명인 김강희 학생, 사진 오른쪽은 김병국 예술협회 회장, 김민희 디렉터, 김강희, 강병우, 장건, 장민준, 성에진 메인작가, 곽정렬 부총영사.(사진 왼쪽부터)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R. 6th - MAR. 12th, 2026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40 years Since 1982

H MART



**SPRING BRINGS DAYLIGHT SAVINGS** Please turn your clocks forward 1 hour on March 9th (Sunday) at 2am. 3월 8일(일요일) 새벽 2시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시계를 1시간 앞으로 당겨놓으세요.



**KIMCHI FRIED RICE**

That perfect balance of smoky, tangy, and savory in every bite. Make this crowd-favorite kimchi fried rice at home with H Mart ingredients, simple, versatile, and always a classic. 언제 먹어도 맛있는 김치볶음밥, H 마트와 함께 간편하게 만들어보세요!





Peeled Garlic  
간 마늘 5 LB/JAR

**\$14.99**



Hallabong Mandarin  
한라봉 3 LB/BOX

**\$9.99**



Taiwan Spinach  
대만 시금치 LB

**\$1.7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8 CNT/BOX

**\$2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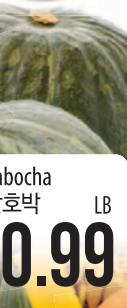
Vietnamese Pomelo  
베트남 포멜로

**\$2.49**



Jumbo Yellow Onion  
양파

**\$0.49**



Kabocha  
단호박 LB

**\$0.99**



Dragon Fruit  
White Flesh 용과

**\$2.99**



Frozen Durian  
냉동 두리안 LB

**\$2.99**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1.49**



Shanghai Choy  
청경채 LB

**\$1.29**



Korean 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10.58 OZ/PKG

**2\$4.99**



Shine Muscat Grape  
샤인 머스켓 포도  
1.32 LB/PKG

**\$9.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EA

**\$0.99**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CERTIFIED ANGUS

Fresh Beef Heel Meat  
생 소 사태 LB

**\$9.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Bone-in Pork Rib Belly  
생 뼈있는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7.99**



Fresh Chicken Tenderloin  
생 닭안심 LB

**\$3.99**



Marinat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8.99**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6.99**



Frozen Red Snapper  
홍도미 LB

**\$8.99**



Frozen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LB

**\$23.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4.99**



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7.99**



Frozen Pompano  
겉은 병어 500-700'S/LB

**\$3.99**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Zoey Burger Hero Shin Ramyun Cup  
농심 조이 버거 히어로 신라면 컵

**\$14.99**



3.35 OZ X 6 CUPS /PKG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Mira Spicy Queen Shin Ramyun Cup  
농심 미라 스파이시 퀸 신라면 컵

**\$14.99**



3.35 OZ X 6 CUPS /PKG

**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Rumi Superstar Shin Ramyun Cup  
농심 루미 슈퍼스타 신라면 컵

**\$14.99**



3.35 OZ X 6 CUPS /PKG

**SUNG GYUNG FOOD**

Seasoned Sliced Laver  
성경 재래식 도시락김

**\$4.99**



0.14 OZ X 16 EA/PKG



HAI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6.99**



Swimming Crab Marinated in Soy Sauce  
연평도 알배기 간장게장 4.4 OZ

**\$18.99**



APPLE HOUSE On the Spot Teokbokki  
애플하우스 즉석떡볶기 26.1 OZ

**\$6.99**



CHUNG JUNGONE Smoked Cooked Sausage  
청정원 참작 흑돼지 바베큐 소세지 8 OZ

**\$4.99**



PULMUONE Mozzarella & Fishcake Corn Dogs  
풀무원 모자렐라 핫도그 14.1 OZ

**\$6.99**



HAETAEE Spicy Seafood Soup  
해태 해물육개장 17.64 OZ

**\$4.99**



TABLEMARK Takoyaki  
테이블마크 타코야기 6.74 OZ

**\$3.99**



HAIO Natural Fine/Coarse Sea Salt  
해오름 명품 고운/굵은 소금 10 LB

**\$10.99**



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소면 5 LB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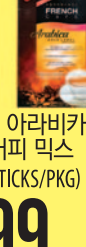
HAITAI Ace Cracker  
해태 에이스 크래커 12.84 OZ

**\$3.99**



HAIITAI IVY Almond Cracker  
해태 아이비 아몬드 크래커 6.28 OZ

**\$3.99**



NAMYANG French Cafe Arabica Gold Label Instant Coffee Mix  
프렌치 카페 아라비카 골드 라벨 커피 믹스 2.55 LB (100 STICKS/PKG)

**\$1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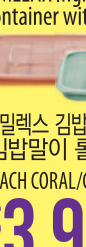
Plastic Sink Strainer  
고급 플라스틱 주방 싱크망 ~~\$3.49~~

**\$2.79**



ERATO MOI Ceramicware  
에라토 모이 도자기 그릇

**\$8.99**



CIMELAX Ingredient Container with Sushi Roll  
씨밀렉스 김밥재료 보관용기 (김밥말이 롤러 포함) PEACH CORAL/GREEN

**\$3.99**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 김치!**

**J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1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mailto: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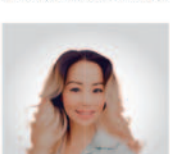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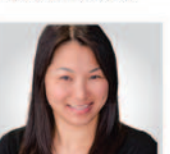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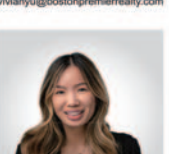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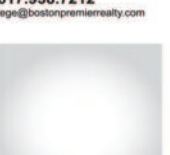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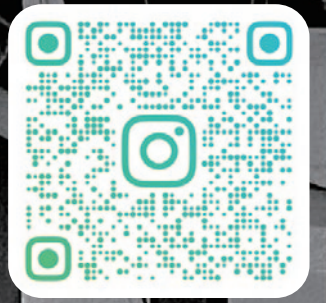
|                                                                                                                                                                                                 |                                                                                                                                                                                                              |                                                                                                                                                                                                                           |                                                                                                                                                                                                                                 |                                                                                                                                                                                                                             |
|-------------------------------------------------------------------------------------------------------------------------------------------------------------------------------------------------|--------------------------------------------------------------------------------------------------------------------------------------------------------------------------------------------------------------|---------------------------------------------------------------------------------------------------------------------------------------------------------------------------------------------------------------------------|---------------------------------------------------------------------------------------------------------------------------------------------------------------------------------------------------------------------------------|-----------------------------------------------------------------------------------------------------------------------------------------------------------------------------------------------------------------------------|
| <br><b>이사 이 제 봉</b><br><b>DIRECTOR</b><br><b>781.654.5281</b><br><small>jeb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br><b>MARKETING DIRECTOR</b><br><b>508.326.6285</b><br><small>steve@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매니저 캐시 송</b><br><b>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b><br><b>414.313.4165</b><br><small>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매니저 크리스틴 송</b><br><b>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b><br><b>773.968.2651</b><br><small>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매니저 신 보 경</b><br><b>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b><br><b>508.361.6064</b><br><small>bos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                                                                                                                                                                                     |                                                                                                                                                                                   |                                                                                                                                                                                   |                                                                                                                                                                                   |                                                                                                                                                                                   |                                                                                                                                                                                 |
|-------------------------------------------------------------------------------------------------------------------------------------------------------------------------------------|-----------------------------------------------------------------------------------------------------------------------------------------------------------------------------------|-----------------------------------------------------------------------------------------------------------------------------------------------------------------------------------|-----------------------------------------------------------------------------------------------------------------------------------------------------------------------------------|-----------------------------------------------------------------------------------------------------------------------------------------------------------------------------------|---------------------------------------------------------------------------------------------------------------------------------------------------------------------------------|
| <br><b>EJ Kim</b><br><b>617.388.7652</b><br><small>ej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줄리 전</b><br><b>978.494.2043</b><br><small>julie@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니키 박</b><br><b>617.447.0591</b><br><small>nikkipark@gmail.com</small>                   | <br><b>피터 주</b><br><b>617.780.7839</b><br><small>thepeterju@gmail.com</small>                  | <br><b>지나 최</b><br><b>978.866.3248</b><br><small>thepeterju@gmail.com</small>                 | <br><b>이현주</b><br><b>401.935.3397</b><br><small>hyunju0921@gmail.com</small>               |
| <br><b>사라 유</b><br><b>617.838.5787</b><br><small>sa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그레이스 정</b><br><b>617.455.7710</b><br><small>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황수진</b><br><b>617.538.6973</b><br><small>sujiwang1@gmail.com</small>                    | <br><b>마사 송</b><br><b>213.503.0397</b><br><small>marcia@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미키 최</b><br><b>413.507.1402</b><br><small>mickichoi@gmail.com</small>                  | <br><b>손창배</b><br><b>617.913.3369</b><br><small>so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br><b>최진민</b><br><b>617.877.0387</b><br><small>jchoi02@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이영순</b><br><b>781.800.3412</b><br><small>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한혜숙</b><br><b>781.999.1214</b><br><small>hw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차민영</b><br><b>617.515.1162</b><br><small>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이준균</b><br><b>617.543.5728</b><br><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메건 리</b><br><b>404.641.5102</b><br><small>meg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br><b>Tammy Woolfolk</b><br><b>917.224.5610</b><br><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Nancy Wang</b><br><b>617.230.9952</b><br><small>nancywang6000@gmail.com</small>         | <br><b>Shirley Zhao</b><br><b>857.231.0316</b><br><small>shirley.zhao.boston@gmail.com</small> | <br><b>Vivian Yu</b><br><b>617.935.2713</b><br><small>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Xian Dole</b><br><b>413.522.8979</b><br><small>xianyu2022@gmail.com</small>            | <br><b>Lu Jiang</b><br><b>240.449.0117</b><br><small>jianglbox@gmail.com</small>           |
| <br><b>John Tran</b><br><b>617.406.9652</b><br><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Rebecca Phu</b><br><b>617.833.1088</b><br><small>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Michael Somma</b><br><b>978.873.0076</b><br><small>mike@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Linda Ta</b><br><b>857.210.8830</b><br><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Jun Wang</b><br><b>646.270.2923</b><br><small>jun.w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Lily Wang</b><br><b>617.938.7212</b><br><small>lege@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br><b>Crystal Wei</b><br><b>413.308.0255</b><br><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빈센트 박</b><br><b>201.446.8595</b><br><small>vincent@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제이크 김</b><br><b>781.956.0409</b><br><small>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이상현</b><br><b>857.260.0434</b><br><small>sanglee@bostonpremierrealty.com</small>        | <br><b>Mimi Belanger</b><br><b>413.237.1586</b><br><small>mimiy111@hotmail.com</small>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 전문가에게 듣는 모기지 관련 궁금한 모든 것들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 부동산에 있어 본격적인 봄 시장이 시작됐다. 물론 보스턴은 겨울이 한창이지 만 눈 덮힌 야드에서는 잔디가 봄을 기다리며 싹틔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주택 구매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다. 보통 봄시장에 집을 구매해야 자녀들이 있는 경우 따뜻한 기간 동안 여러가지 적응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가을학기에 맞춰 새로운 학군에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구매의 핵심인 모기지와 관련해 제너럴모기지캐피탈코퍼레이션 한인 전문가인 마이클 리 부사장과 모기지에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해 본다.

**첫 주택 구매자(First-Time Homebuyer) 관점**

▪ **현재 6%대 모기지 금리가 일반적이다. 금리가 6%일 때 “지금 사는 게 맞는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마이클: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주택 구매는 금리보다 개인 재무 상황과 목적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과 충분한 다운페이, 비상자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 장기 보유 계획이라면 단기 금리 변동은 큰 변수가 아니며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동안 집값 상승이나 경쟁 심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와 장기 계획에 부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첫 구매자는 변동금리(ARM)를 고려해도 될까? 아니면 고정금리가 여전히 안전하나?**

마이클: 첫 구매자의 경우 5~7년 내 매도 또는 재융자 계획이 명확하다면 초기 금리가 낮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ARM도 전략적으로 고려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보유 계획이거나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안정적인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기 전략이면 ARM, 장기 안정성 중시라면 고정금리가 기본 원칙이다.

## 〈전체 기사 읽기〉

▪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리파이낸싱을 전제로 집을 사는 전략은 현실적인가?**

마이클: 리파이낸싱을 전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적으로 금리 인하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인하 시점과 그 폭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 리파이낸싱 수수료도 발생한다. 따라서 예측을 전제로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현재의 금리에서도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리파이낸싱은 하나의 보너스 전략으로 간주하면 된다.

▪ **현재 다운페이먼트 최소 비율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가? PMI를 감수하는 전략은 합리적인가?**

현재 일반적인 최소 다운페이먼트는 컨벤션 대출의 경우 3-5%, FHA대출의 경우 약 3.5% 수준이다. 다운페이먼트가 20% 미만일 경우 PMI(모기지 보험)이 발생, 월 상환액이 올라간다. 집값 상승과 빠른 구매 시점을 고려할 때 PMI를 감수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PMI 포함 월 상환액이 예산 내 인지, 일정 기간 후 재융자 또는 집 대출금 대비 에퀴티상승(LTV 하락)으로 PMI 제거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이미 모기지 보유)**

▪ **모기지 락인(lock-in) 효과 관련, 낮은 금리에 묶여 있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나?**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금리에 이미 고정된 모기지를 가진 집주인들은 재융자를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얻기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 유인이 적다. 이로 인해 시장 매물 부족과 가격 안정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 **현재 6%대에서 리파이낸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나?**

현재 금리 6%대에서 리파이낸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이거나 대출 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있을 때다. 금리가 기존 대출보다 낮아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경

우, 대출 기간을 단축하거나, ARM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려는 경우, 현금 유동성 확보나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즉 재융자는 금리뿐 아니라 전체 재무 구조 개선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현실이다.

▪ **HELOC(주택담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전략은 어떤 장단점이 있나?**

HELOC 활용 전략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라인오브크레딧(LOC)은 필요할 때만 사용 가능해 유연성이 높다. 초기 이자율이 낮으므로 단기 자금 조달에 좋고 주택 가치가 상승하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변동금리이기에 금리 상승 시 부담 증가한다. 따라서 원금 상환 부담이 뒤늦게 발생하며 상환 실패시 담보로 하는 것이 주택이었기에 위험이 크다.

결론적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와 투자 목적에는 유용하지만, 금리 변동과 상환 계획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3% 모기지를 포기하고 6% 모기지로 갈아타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나?**

일반적으로 3% 모기지를 포기하고 6%로 갈아타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주택 크기, 위치, 생활 편의성 등 장기적인 주거 필요가 현재 집으로 충족되지 않을 때

-기존 집 매각으로 자본 차익 실현 후 새 집 구매가 재정적으로 유리한 경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새 집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모기지에서 이것만은 꼭 주의**

▪ **두 상품을 비교할 때 명목금리와 실제금리(APR)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

“두 상품”을 비교할 때는 실제금리(APR)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좋다. 명목금리는 단순 이자율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만 영향을 미친다. 반면 APR은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을 나타내므로, 동일한 이자율 조건에서 실제 부담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다만, APR은 클로징 비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이자율 하에서 총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

▪ **포인트(buy-down)는 언제 유리하나?**

포인트(buy-down)는 장기적으로 낮은 금



제너럴모기지캐피탈코퍼레이션 한인 전문가인 마이클 리 부사장

리로 월 납입액을 줄이고 싶을 때 유리하다. 특히 현금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거주 계획이 명확한 경우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월 상환액을 줄이는 경우다.

포인트를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알고 싶은 경우, 즉 손익분기 기간은 포인트 비용을 포함해 총 추가비용을 계산한 후 이 비용을 매달 절약되는 금액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얼마 후에 포인트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큰 비용을 지불하고 매월 상환액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 보유시에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 **모기지 신청 직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나?**

모기지 신청 직전에는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필수이다. 일반적으로 새 신용카드 개설, 자동차 할부, 대출 증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카드 해지 역시 신용 기록과 점수 측면에서 부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신용 점수와 부채비율(DTI)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대출 승인이나 금리 조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기지 신청 전에는 재정적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editor@bostonkorea.com

## 보스턴 지역에서 다운페이먼트 마련하는 법

▶▶1면에 이어서

정도만 준비해도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 20%가 바람직하지만 얼마를 모으든지 간에 반드시 20퍼센트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스하우징의 주택 소유 프로그램 부사장 문저 아일루시는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장 큰 오해는 ‘집을 사려면 반드시 20퍼센트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라며 “20퍼센트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조사하고 교육을 받고, 주택 구매자 수료증(first home-buyer certification)을 취득하라”고 말했다. 매스하우징은 보다 저렴한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수만 달러를 저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도 있다.

**보스턴 및 매사추세츠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다운페이먼트 대출**

매스하우징은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3만 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구매자의 연소득이 해당 카운티의 중위소득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미들섹스 카운티의 로웰에서 연소득 6만6,762달러 이하인 구매자는 무이자 조건으로 3만 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스하우징은 지역 중위소득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매자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제 같은 카운티의 케임브리지에서 연소득 20만5,335달러 이하인 구매자도 3퍼센트

이율로 15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만5,000달러의 다운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라헬 최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매스하우징 대출을 받아 다운페이먼트를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높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스턴 거주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원플러스보스턴 프로그램이 있다. 이 밖에도 시와 주 전역에 다양한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택 구매 보조금**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저리 대출이라면,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다. 저

소득 및 중간소득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재정적 ‘선물’이다.

모기지 대출전문가 줄리언 에르난데스는 “최근 린 시에서 고객 한 명이 보조금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며 “클로징 비용으로 1만2,000달러를 지원받았고, 상환 의무는 없었다”고 말했다.

모기지 대출 기관은 이러한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출기관은 도시와 주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검색 시에는 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의 주 및 지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시 정부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개발 공사와 같은 비영리 단체 지원, 교사 및 응급구조원 대상 보조금, 고용주 제공 보조금 등 다양한 자

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채 통합**

에르난데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 통합 대출을 통해 기존 부채를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권했다. 또한 신용카드 한도가 거의 찼다면 잔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는 모기지 대출 기관이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월 지출 줄이기**

더 저렴하거나 묶음 상품 보험으로 전환하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며, 다운페이먼트 저축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러 달에 걸친 점진적인 절약이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게 한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MAR. 5<sup>TH</sup> - MAR. 12<sup>TH</sup>, 2026

**크리넥스**  
**My Bidet Toilet Wipes**  
마이비데 화장실용 물티슈 ~~\$11.99~~  
**\$4.99**



**LIMIT 4** 46 SHEETS X 4 PKG/SET

**ChaCha**  
**Roasted Sunflower Seeds Gift Pack**  
해바라기씨 선물세트 **LIMIT 2**  
**\$7.99**



**NATURAL/COCONUT/SPICED**  
**8.82 OZ X 3 EA/PKG**  
**+ SEED SHELL CRACKER**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 빅뱅, 데뷔 20주년 맞아 글로벌 투어로 다시 뭉친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빅뱅이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투어에 나선다.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4일 공식 블로그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양현석 총괄은 "빅뱅 멤버들과 공연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며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완벽하고 훌륭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YG 스태프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빅뱅은 지난 2006년 데뷔해 '거짓말', '하루하루', '마지막 인사', '루저'(Loser) 등 히트곡을 잇달아 내놓으며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봄여름가을겨울'을 마지막으로 빅뱅으로는 신곡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드래곤, 태양, 대성 세 멤버가 동료의 솔로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하거나, 지난 2024년 엠넷 연말 대중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에 함께 출연하며 우정을 이어왔다.

멤버들은 그동안 올해 빅뱅 20주년을 맞아 팀 활동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솔로 팬 미팅에서 "올해 빅뱅이 20주년 컴백을 한다. 멤버이자 동시에 팬의 마음으로 저 또한 기대하고 있고, 멤버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빅뱅의 이번 투어는 팀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K팝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준 YG와 빅뱅이 다시 손을 잡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체적인 투어 계획 등은 추후에 공개된다.



빅뱅은 다음 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도 출연한다.

양현석 총괄은 이 밖에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 등 다른 YG 소속 가수들의 활동 계획도 함께 밝혔다.

베이비몬스터는 5월 미니앨범, 올가을 두 번째 정규앨범을 내놓는다.

양 총괄은 "미니앨범 타이틀곡은 '춤'(CHOOM)이다. 한국어로 쓰는 춤이라는 폰트가 굉장히 멋지다"며 "동양적인 느낌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춤을 추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베이비몬스터는 6월부터는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월드투어를 연다.

트레저는 6월 힙합 장르를 담은 새 미니앨범을 내고 활동 2막을 연다.

YG는 올가을을 목표로 새로운 보이그룹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처음 알렸다. 앞서 공개한 이벨리와 찬아에 이어 새 걸그룹인 '넥스트 몬스터'(가칭)의 나머지 두 멤버

도 조만간 공개한다.

양 총괄은 "YG가 올해 창립 30주년이다. 특별한 감회를 전하기보다는 앞으로 40주년, 50주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음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난해부터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물을 더욱 빛나게 다듬어서 여러분께 일년내내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 '왕과 사는 남자', 연휴에만 247만명...이번 주 천만 전망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삼일절 연휴에만 247만명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며 이번 주 천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

3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주말과 삼일절 대체휴일이 이어진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4일간 총 247만9천여 명이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27만8천여 명, 28일에는 65만5천여 명이 '왕과 사는 남자'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고, 이달 1일에는 개봉 이후 가장 많은 81만7천여 명이 관람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에도 72만8천여

명이 추가로 들면서 누적 관객 수는 921만3천여 명이 됐다. 연휴 내내 '왕과 사는 남자'의 매출 점유율은 76.9%~83.4% 사이의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박스오피스 2위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가 차지했다. 연휴 기간 총 16만6천여 명이 관람하며 '왕과 사는 남자'에 이어 2위 자리를 줄곧 지켰다. 지난달 11일 개봉한 '휴민트'의 누적 관객 수는 186만3천여 명이다.

3위는 지난달 25일 개봉한 일본 영화 '초속 5센티미터'가 차지했다. 동명 애니메이션의 실사 영화로, 연휴 기간 총 3만9천여 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봉해 흥행 뒷심을 이어가고 있는 박시후·정진운 주연의 '신의 악단'은 연휴 동안 3만5천여 명이 관람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8시 예매율은 '왕과 사는 남자'가 55.2%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총 12만6천여 명이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4일 나란히 개봉하는 제시 버클리·크리스틴 베일 주연의 '브라이드!'와 염혜란 주연의 '매드 댄스 오피스'는 각각 예매율 7.1%, 5.0%로 2·3위를 차지했다.

one@yna.co.kr







# 보스턴장로교회 설립50주년 감사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보스턴 장로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일시 : 2026년 3월 22일

장소 : 보스턴 장로교회 본당

감사 예배 11:00 am

기념 음악회 5:00 pm

만찬 6:30 pm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보스턴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www.bostonkorea.org](http://www.bostonkorea.org)



# 보스턴서 집 살 때 모기지 상환액 외 숨겨진 비용...연간2만 달러 넘기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을 비롯한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많은 구매자들이 매매가와 모기지 상환액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숨겨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주택 소유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스턴글로벌 보도에 따르면 주택 점검, 법률 비용, 권리 보험(title insurance), 클로징 비용, 주택 소유자 협회(HOA) 비용, 유지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주택 구입 및 보유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이 수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하우스 푸어(house-poor)’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간 유지 비용 보스턴이 전국보다 높아**

질로우와 썸택(Thumbtack)이 2025년 11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전체 평균 주택 소유 숨겨진 비용은 연간 1만5,979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에서는 연간 평균 2만1,320달러로 두배 가량에 달했다.

이 비용에는 재산세, 주택 보험, 유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보스턴의 경우 평균 재산세는 7,004달러, 주택 보험은 2,245달러, 유지관리 비용

## 〈전체 기사 읽기〉

은 1만2,071달러 수준이다.

주택 관리 플랫폼 썸택의 모건 올슨 주택 전문가는 “보스턴의 기후는 유지관리 비용이 높은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겨울과 폭풍 등 다양한 기후 환경이 난방 시스템과 외부 시설의 마모를 빠르게 만들고 유지관리 빈도도 높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방 정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냉난방 시스템 점검, 창문 틈새 차단, 작은 수리 등을 제때 처리하면 더 큰비용의 수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점검(Home Inspection)은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특히 보스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점검 비용은 300-500달러 정도다.

## 콘도 HOA 비용도 주요 부담

또 하나 많은 구매자들이 간과하는 비용은 콘도미니엄 협회나 주택 소유자 협회(HOA) 분담금이다.

리얼터닷컴의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택의 약 44퍼센트가 월 HOA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34.3퍼센트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5년 기준 중위 HOA 비용은 월 135달러다.

문제는 월 분담금뿐 아니라 특별 분담금(special assessment)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물 수리나 시설 개선을 위해 협회가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소유주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부 콘도 협회는 신규 소유자가 클로징 시 수개월치 분담금을 자본기여금(capital contribution) 형태로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백베이더글러스 엘리먼의 부동산 중개인 일레인 돌리는 “신규 콘도 구매자들이 몇 달치 콘도 비용을 한꺼번에 선납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콘도 입주 시 엘리베이터 보호 등을 위해 부과되는 입주 수수료도 있다. 이 비용은 보통 300달러에서 500달러 정도다.

## 집 계약 후 임대료와 모기지 동시에 낼 수도

주택 구매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용은 이른바 ‘중복 기간(overlap period)’이다.

일부 구매자들은 기존 리스(임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금을 동시에 부담해



야 한다.

한 전문가는 최근 사론 지역 주택 구매 사례를 들며 “리스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렌트비와 모기지를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한 구매자도 있었다”며 “집주인과 조기 계약 해지를 협상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클로징 비용도 대출액의 최대 6퍼센트

모기지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정평가 비용,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 선지급이자(pre-paid interest), 에스크로 비용 등 다양한 클로징 비용도 발생한다.

로켓 모기지에 따르면 이러한 클

로징 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의 3퍼센트에서 6퍼센트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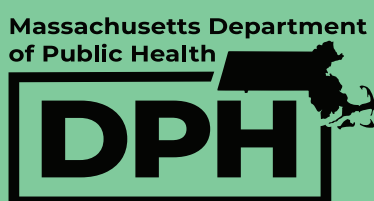
다만 연방 법에 따라 구매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모기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제공되는 ‘대출 추정서(Loan Estimate)’와 클로징 최소 3영업일 전에 제공되는 ‘클로징 공시서(Closing Disclosure)’를 통해 최종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매매 계약서, 대출 서류, 콘도 협회 관련 문서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https://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 2026 정기 교사 연수회 • 사은회

## 변화하는 교육, 성장하는 교사

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8:00  
보스턴 장로교회 (2 Main St. Hopkinton, MA)

### 1부 교사 연수회

전체 강연 1: 김민정 [UMASS 교육대학원 교수]  
전체 강연 2: 김경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우수교사, 장기근속 교사 &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시상식

### 2부 교사 사은회

저녁 식사  
우수 배우자상 시상식  
전통놀이 잔치  
경품 추첨

참가 신청: QR코드 / 구글폼 [2026 봄 교사 연수회 & 사은회 신청서 링크](#)

참가비: \$15/1인 (교사 가족동반 무료); 비회원교 \$20/1인

등록 마감일: 3월 15일

문의: [kosane2025@gmail.com](mailto:kosane2025@gmail.com)



2026 봄 교사 연수회 & 사은회 신청서

후원



KSA-NE  
이사회 • 교장단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보스턴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Overseas Koreans Agency  
재외동포청



2026년 이민국생활을 담당하게 다들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 [인류연재] 다문화와 향수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랑하기란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 문보영, 삶의 반대편에 들관 이 있다면

나를 경계로 안팎의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러기로 한 순간부터 스스로 이해할 말과 타인에게 이해받을 말 사이 그 어색한 시차를 매번 바로 잡진 않았다. 대신 상대방에게 재빨리 아무 대답이나 해버리거나, 오해 섞인 시선을 외면하며 침묵하기를 일삼았다. 이런 식으로 서투른 외국어에 무한히 빚진 사람처럼 굽신대는 마음에만 나날이 유창해졌다. 그러나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내키는 대로 이곳을 떠날 순 없으므로 나는 다시 평일 오전 ESOL 수업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오늘 날씨가 파랗게 적힌 화이트보드 앞에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음력설에 대해 얘길 나누라고 했다. 교실 창가 주변에 고루 퍼져

책상을 맞대고 앉은 이민자 사이에서 과연 누가 먼저 입을 뿜 것인가. 서로 눈치만 살피는 이 분위기가 금방이라도 우릴 간지럼 태울 듯이 교실 안을 맴돈다. 그 사이 할 말이 떠오른 내가 목소리를 낸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깐 엄마랑 이모, 숙모, 큰엄마, 작은엄마가 온 식구 먹일 음식 하느라 부엌에서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를 이룬 그 여성들에게 결코 가닿지 않을 이 고백은 축 처진 목소리로 한국에 한번도 가본 적 없다는 외국인들에게 전해진다. 나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 앉은 중국 아저씨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고개를 끄덕인다. 경청하는 그 몸짓을 따라 그가 아직 걸치고 있는 겨울 외투가 바스락거린다. 나프탈렌향이 훅 끼친다. 더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문 나는 그에게 간절한 눈빛을 건넨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 차례니까요.



음력설에 중국에선 빨간 봉투에다 돈을 넣어 애들한테 선물한다고 그가 말한다. 영어로 말하는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자니 강아지가 짖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다. 우아한 음으로 목구멍을 통과시키기엔 이 공간과 시간을 압도할 쓰나미와 같은 마음을 지닌 그의 의욕적인 발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무슨 퀴즈 맞추는 사람처럼 다음 이어질 말을 짐작해 외쳐버린다. 이

런 내 모습도 왁자지껄한 개 같을 거라 우린 서로의 말을 두 번 세 번 캐묻지 않고 한 번에 알아듣는다. 여기서 그 어느 명절도 지난 세월 속 내가 보낸 명절과 같이 집안 누군가의 수고나 나의 수고로 채우지 않는다. 뜻하지 않게 불공평한 화목에서 비껴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여성들의 애정 어린 손맛에서 떨어진 탓에 때마다 입맛이 쓰다. 뒤늦게 아이와 어른의 시점 모두에서, 혹

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국 명절 분위기를 되돌아보며 시름에 잠겨 있을 동안 내 앞에 앉은 밀레니얼 러시아인이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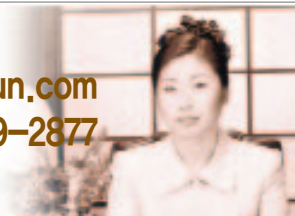
“난 내가 아는 이 세상 모든 기념일을 기념해”

아니, 그러면 애 오늘 중국 아저씨한테 세뱃돈 좀 받아야겠는데요,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머리를 쓴다. 어느새 책을 펼치려는 선생님 목소리에 당장 고민을 접는다.

3월 8일 - 3월 14일

##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 쥐띠 |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 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울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1, 14일 길일. 9, 12일 주의.



### 소띠 |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

● 운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세요. ●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8, 14일 길일. 10, 13일 주의.



### 범띠 | 활력과 의욕을 되찾는

● 운수: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 금전: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9, 13일 길일. 11, 14일 주의.



### 토끼띠 | 미리 낮춰서 바라면

● 운수: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볼을 찾으려고 정신이 달도록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매화 가지에 볼이 있는 격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0, 14일 길일. 9, 12일 주의.



### 용띠 | 한 단계 발전하게

● 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습니다. ● 애정: 기회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 뱀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 금전: 말이 오가던 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



### 말띠 |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 운수: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 금전: 곳곳에 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더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



### 양띠 |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 운수: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 금전: 적지 않은 돈을 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에 잘 되겠습니다. ● 애정: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9, 14일 길일. 12, 13일 주의.



### 원숭이띠 |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 운수: 무슨 일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결과는 좋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단 매사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1, 13일 길일. 8, 14일 주의.



### 닭띠 | 더 힘껏 노력해야

● 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차지게 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8, 11일 길일. 9, 12일 주의.



### 개띠 |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 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이룰 기회가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어지지 마세요.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모수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9, 11일 길일. 10, 12일 주의.



### 돼지띠 | 욕식을 가릴 줄 알아야

● 운수: 소낙비가 오랴가락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랴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 금전: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데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욕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0, 14일 길일. 8, 11일 주의.



# 지수 "월간남친"으로 첫 현대극... '로코여신' 꿈꿔요

(서울=연합뉴스) 고기혜기자 = "정말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그때 제 직업까지 달라지다 보니 더 상황에 몰입하고 빠져들었죠."

그룹 블랙핑크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중인 지수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월간남친'의 제작발표회에서 작품을 통해 직접 가상 현실을 체험해 본 소감을 전했다.

'월간남친'은 과거 사랑에 상처 받은 후 일에만 몰두하던 웹툰 PD 서미래(지수)가 가상 연애 시물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연애를 체험해보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지수는 "가상현실이라는 소재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또 극 중 서미래라는 캐릭터와 실제 제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저도 평소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미래와 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또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두려움을 갖는 모습은 실제 제 나이에 친구들이 하는 고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이번 작품에서 저와 작 붙는 캐릭터를 잘 만났다고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이번 작품으로 데뷔 후 첫 로맨틱 코미디이자 현대극에 도전했다.

그는 "서민국 배우가 로맨스를 많이 해보셔서 오피의 리드를 따라 열심히 해 봤다"며 "새로운 '로코여신'을 원한다"고 말한 뒤 수줍

게 웃었다.

특히 그는 "작품 안에서 무려 250벌의 옷을 입었다"며 "시대와 직업도 매번 달라지고, 각양각색의 데이트가 등장해 다양한 세계로 여행을 다니는 듯한 힐링을 선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민국은 미래의 직장 동료이자 라이벌인 박경남으로 분해 지수와 앙숙 로맨스를 그린다.

서민국은 경남에 대해 "겉보기엔 로봇처럼 차갑고 일만 하는 '일잘러'지만, 속은 배려심 넘치고 섬세한 인물"이라며 "사골처럼 '진국' 같은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애니메이션 '주도피아'의 니코 주디 조합에 비유될 만큼 완벽했다는 후문이다. 서민국은 "대본보다 지수가 서미래 캐릭터를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게 빚어냈다"고 극찬하며 훈훈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연출을 맡은 김정식 감독 역시 배우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냈다.

김 감독은 "지수는 극중 95% 이상을 차지하는 많은 분량을 소화하며, 화려한 가상 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쉽지 않은 연기를 해냈다.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배우"라고 칭찬했다. 이어 서민국에 대해서도 "자신보다 상대를 돋보이게 할 줄 아는 프로"라고 치켜세웠다.

극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는 화려한 특별 출연진과 후반부에 몰아칠 '반전'이 꼽힌다.

우선 이수혁, 서강준 등 다양한 대세 배우들이 다채로운 테마의 가상현실 속 '월간남친'으로 등장



해 여심을 흔들 예정이다.

김 감독은 "이수혁은 만화 같은 AI(인공지능) 비주얼로, 서강준은 남자가 봐도 반할 비주얼로 등장한다"고 귀띔했다.

또 그는 "중후반부 두 커플을 둘

러싼 엄청난 반전과 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국도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엄청난 반전이 있다. 극 중반 이후부터 진짜 경남의 모습이 나오니 꼭 봐주셨

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감독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설정을 다 때려 넣었다"며 "어디선가 개발되고 있을 법한 서비스를 이 작품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 블랙핑크 '데드라인' 3일간 147만장 팔려... "추가 제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의 세 번째 미니앨범 '데드라인' (DEADLINE)이 발매와 동시에 음반·음원·뮤직비디오 모두 흥행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가요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매된 '데드라인'은 이달 1일까지 한터차트 기준 147만920장이 팔려 주간 차트 1위를 기록했다.

발매 당일 146만장이 팔려 K팝 걸그룹 사상 하루 최고 판매량을 달성한 데 이어 단 3일 동안 150만장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앨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아 현재 추가 제작을 진행 중"이라며 "블랙핑크가 또 한번

써 내려갈 새로운 기록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드라인'은 또한 전 세계 38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에서도 수록된 전 곡이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신보의 타이틀곡 '고'(GO)는 멜론 '톱 100'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 중이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현재 3천 200만뷰를 넘겼고,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1위에도 올랐다. '고' 뮤직비디오는 화려한 CG 연출과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미가 강렬한 노래의 사운드와 어우러지며 호평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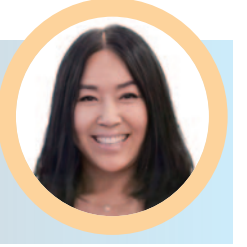


(좌로부터) 리사, 지수, 제니, 로제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 '현숙한 여인'의 삶이길 기도하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 31:10, 26-31)

잠언 31장 10절의 '현숙한 여인' '은 히브리어로 '에셋트 하일'(עֶשֶׂת חַיִּיל, Eshet Chayil)이다. '현숙한 여인' 을 뜻하며, '에셋트'(여인/아내)와 '하일'(능력/힘/군대)의 합성어이다. 단순히 조용한 정숙함을 넘어, 가정을 지키고 삶을 개척하는 강인한 생활력, 지혜, 용기, 여호와 경외함을 갖춘 '

능력 있는 여인'을 의미한다.

20여년 동안 칼럼 글을 쓰면서 여인의 삶에 대한 아니 가정에서 아내로, 엄마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많이 나눴던 기억이다. 만 21살에 뉴욕에서 남편을 만나 죽도록 연애를 하다가 만 24살에 결혼해 스물 여섯, 일곱, 여덟에 세 아이를 낳았다. 많이 바쁜 시간이었다. 결혼을 하니 세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른다. 친정에서 아버지 댁에 얻은 늦둥이 막내라 응석받이로 자랐음은 물론이거니와 버릇도 없었고, 언니를 이겨먹고, 고집은 또 황소처럼 세웠던 기억이다.

결혼 후 시대 가족들이 많았다. 친정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나는 '홀로 단신' 이었다. 여러가지로 마음에 버거움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친정 조카가 둘 미국에 와 살게 되었다. 어쩌면 그런 상황들이 나를 든든히 서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10년의

계획을 세워갔다. '내 나이 서른' 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남자의 아내와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가정의 머리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흔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다시 기도하며 '내 나이 마흔' 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멋진 여자' 로 살기로 기도하며 작정을 했다. 시인이 되고, 수필가가 되고, 칼럼니스트가 되어 신문에 글을 쓰고 미국과 한국 한인문화회 행사를 오가며 정말 멋지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나의 지경은 놀라움이었다. 그 누리는 삶 뒤에는 말없이 후원하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많은 신어머님이 계셔서 가능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여자로 살았다.

시간이 훌쩍 흘러 스물을 맞게 되었다. '내 나이 스물' 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름다운 여자' 로 살기를 기도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100세 시대를 알았더라면

'아름다운 여자' 는 아마도 일흔 정도에 정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세상 나이 오십에도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 자연을 좋아하는 나는 그때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요 세미티 하프도드 올라보았고, 그랜드캐년 바닥에 푸르게 흐르는 콜로라도 강물에 발도 담그고 올라왔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지금은 예수의 언덕에 올랐다. '내 나이 예순' 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레디오 방송사역자와 TV 방송사역자로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세워 놓으셨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맡겨주신 일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는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현숙한 여인' 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38) 투자에 확실한 원칙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한국 주식시장이 설 연휴로 사흘간 휴장했다. 지난해 세계 주요 시장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했던 한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도 40%나 추가 상승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미주 한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재 한국 증시의 방향은 상당 부분 미국의 AI(인공지능) 붐에 달려 있다. 한국 시장은 전자제품 수출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AI데이터센터, PC,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다. 전 세계적인 메모리 칩 공급 부족으로 가격과 이익이 크게 상승한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MSCI 한국 지수에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약 3분의 1이 메모리 사업에서 발생하며, SK하이닉스는

사업 구조상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 높다.

이 구조는 최근 한국 증시에 강한 상승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매우 뚜렷한 산업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설비 확장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AI 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결국 이는 미국 기술주 중심 시장에 크게 베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에 친숙함과 애정을 느낀다. 그러나 자산 관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시장: 전 세계의 60% 이상, 한국 시장: 약 2% 미만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 자산의

20~30% 이상을 한 국가에 투자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분산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기업 한 곳의 시가총액이 한국 전체 증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미 크게 달라져 있다.

2016년부터 2026년 초까지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총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 S&P 500: 총수익률 약 275~285%, 연평균 약 15%대

- KOSPI: 총수익률 약 105~115%, 연평균 약 7~8%대

연평균 7~8%의 차이는 복리로 계산하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달러 자산”이라는 강점이 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세계 기축통화로 자산을 보유하는 의미도 있다. 이는 은퇴 준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인사회에서 “한국 기업을 밀어줘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확률의 문제다. 글로벌하게 분산투자해 자산을 늘리면 소비 여력이 커지고, 그 소비가 다시 한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개인의 건전한 투자가 결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분산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한 국가에 집중하지 말고, 한 산업에 몰리지 말고,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 폭넓게 자산을 배분할 때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분산 투자야말로 모든 투자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원칙이다.



# ▶▶ Meet Me at the MFA ▶ Spring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Special Exhibition

## Framing Nature

▶ Opens 3/15



\$5 Third Thursdays

## Nowruz

▶ Thursday 3/19  
▶ \$5 admission after 5 pm

Special Exhibition

## Chinese Patchwork

▶ Through 5/3



#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방암- 증상부터 자가 검진법까지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만 40세 이상의 여성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치명적인 질환인 유방암의 증상부터 자가 검진법에 대해서 휴람 의료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유방암은 유방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종양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유방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계속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 암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 검진을 위해 만 40세 이상

여성은 1~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 및 의사의 임상 진찰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유방암의 증상〉  
유방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으로 병이 진행되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는 것은 유방암의 일종인 파제트병의 증세일 수 있다. 암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유방의 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이거나 유두가 함몰되기도 한다.

유방암의 발생 요인은? 유방암의 발생기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유방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는데, 어머니나 자매 중 어느 한쪽에 유방암 환자가 있을 경우 둘 다 암이 없는 경우 대비 유방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2~3배, 어머니와 자매 모두 유방암 환자라면 그 위험성이 약 8~12배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가족력이 있을 경우 철저한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그 외의 위험인자로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연령 및 출산·수유 경험, 방사선 노출, 음주, 환경호르몬 등이 지목된다. 에스트로겐은 유관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 비만 또한 주의해야 할 요인인데 특히 폐경 후 비만은 위험

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 증상부터 자가 검진법까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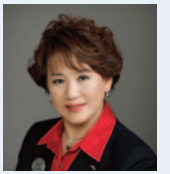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 매사추세츠에서 집 산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10가지

애나 정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매사추세츠에서 집을 산 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특히 뉴잉글랜드 특유의 오래된 주택, 긴 겨울, 높은 유지비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택 구매자가 가장 큰 숨겨진 비용이 집 유지 관리비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구매 후 후회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홈 인스펙션을 하지 않고 구입

경쟁이 치열한 주택의 경우 홈 인스펙션 웨이버 (inspection waiver)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좋은 집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붕 문제, 배관 문제, 기초 균열 등이 발견되면 수만 달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입니다.

## 난방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

뉴잉글랜드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오래된 집이나 단열이 약한 집은 겨울 한 달 난방비가 몇백 달러에서 천 달러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일 히팅은 가격 변동이 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난방 설비의 구입 연도, 유지관리 기록을 요청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 후 얼마되지 않

아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8천에서 1만5천달러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지붕과 주요 설비 교체시기를 확인하지 않은 것

보일러, 온수기, 지붕 같은 주요 설비는 교체 비용이 큼니다. 예를 들어

지붕 교체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이며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보일러 교체는 8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 정도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구매 직후 겨울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 위치보다 집 상태만 보고 산 것

집이 좋고 예쁘다고 해서 샀지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근처 학교가 기대보다 별로이거나,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 경우 자동차 및 연료 비용 그리고 시간 소요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location, location, location” 입니다. 학군이라도 좋고 교통도 좋으며 단지 출퇴근 시간이 긴 경우라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location, location, location” 이란 점을 기본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 재산세(Property tax)를 과소평가한 것

매사추세츠는 타운마다 재산세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타운에 따라 연간 세금 차이가 몇 천 달러가 날 수 있습니다. 구매할 때 월 모기지만 보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

## 오래된 집의 유지비를 과소평가한 것

뉴잉글랜드에는 100년 넘은 집도 흔합니다. 이런 집은 매년 수리할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작은 수리라도 계속 쌓이면 유지비가 꽤 커집니다.

## 홍수 또는 배수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것

눈 녹는 시즌이나 폭우 때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매 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경우, 섬프펌프 (sump pump)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는 5천에서 1만5천달러까지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름철 습기가 많이 차 좋지 않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습기(dehumidifier)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일러 등 처럼 고액은 아니나 제습기 및 펌프 설치의 물은 전기요금까지 추가 비용으로 작용합니다.

## HOA나 콘도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

것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갑자기 특별 분담금(special assessment)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 공사나 지붕 교체 때문에 수천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향후 개발 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것

집을 샀는데 바로 옆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운 개발 계획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너무 무리해서 집을 산 것

매사추세츠 집값은 매우 높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끌어올려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지비, 세금, 수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생활 여유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살 수 있는 최대 가격”이 아니라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주방이나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지붕, 보일러, 기초, 배수 상태입니다.

## 신문을 독자여러분 손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summitinst.com

# Summit Summer Research Programs

## at Harvard, Columbia, and Georgia Tech

이번 여름, 하버드·컬럼비아·조지아공과대학교에서 열리는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선발된 학생들은 각 대학의 교수 및 강사로 구성된 연구 멘토와 함께 대학 수준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현재 8학년부터 11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Day and Residential Programs available



**Harvard University**  
July 6 - 17, 2026



**Columbia University**  
July 6 - 17, 2026  
July 20 - 31, 2026



**Georgia Tech**  
June 1 - 12, 2026  
June 15 - 26, 2026

### Curriculum

- ☑ 연구 분야: 컴퓨터과학, 생물학, 물리학, 심리학, 공학, 역사,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 ☑ 대학 수준의 특강
- ☑ 1:1 멘토링 형식의 연구지도
- ☑ 대학 입시준비를 위한 특별 세미나

### Program Benefits

- ☑ 대학 수준의 연구 역량 개발
- ☑ 연구결과물의 학회 및 학술 저널 투고
- ☑ Summit Symposium에서 발표 기회
- ☑ 대학 입시 등 필요시 추천서 발급 기회



**SUMMIT**  
INSTITUTE FOR YOUNG SCHOLARS

☎ 201-408-2253  
www.summitinst.com





#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 MAIN STAGE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 OPEN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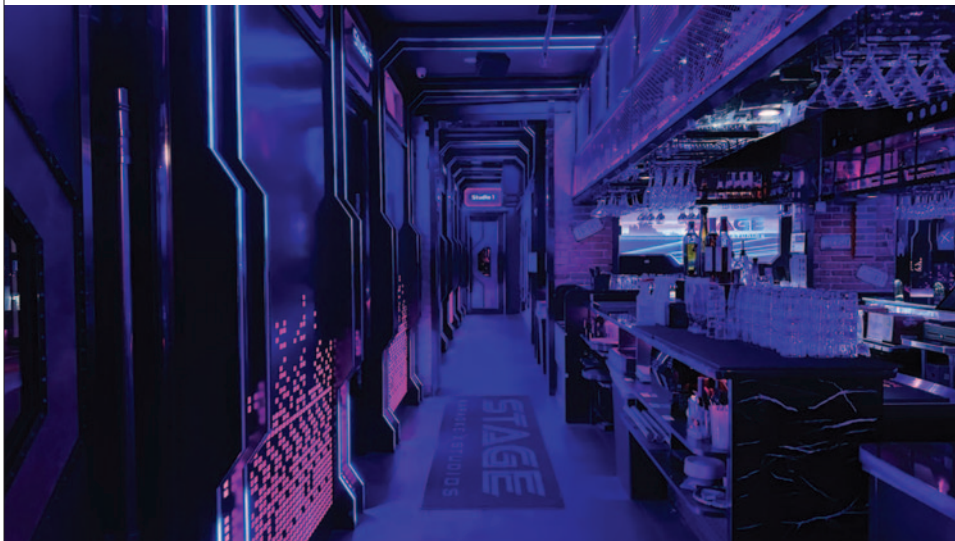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징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윙 등 음식 서비스



###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http://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